

치 관(關) 같아서 당신으로 하여금 출향할 수 없게 하는 닳줄과 같은데, 그것을 모두 끊어야 한다. 물론 수련 중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수련하고 어떻게 이 집착을 내려놓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이미 말했다. 집착심을 모두 포기한다고 하여 바로 어떤 물질적인 것을 모두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며, 우리들이 모두 밥을 동냥해야 한다는 이 뜻이 아니다. 이 문제를 나는 다시 중복하지 않겠다. 신 수련생, 그다지 명백하지 못한 사람은 책을 보라.

제자: 정법(正法)시기에 일부 고층차의 중생들은 본래 대법에 협력하여 좋은 일을 하려 했지만 오히려 장애가 되어, 청리 중에 있습니다.

사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이것은 중생이 모두 대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정법(正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가 도와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는 여전히 원래의 관념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그의 표준이 원래의 표준인가 아닌가? 그러므로 그가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며 또한 성가시게 할 수 있다. 억지로 견지하면 바로 파괴이며, 바로 이 이치이므로 누구도 도울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들에게 하계한 대로 따라 했다면 절대 문제가 없으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일념으로 하여금 모두 점차적으로 사람을 벗어나서 신(神)의 상태가 되라고 한다. 그러나 당신의 매 일념은 모두 걱정하며, 사람 여기에 묶여있어 그것을 떠나지 못한다. 마치 그 선박처럼, 그것이 출향하려 하지만, 닳줄이 모두 부두에 묶여 있고, 많은 닳줄이 묶여 있어, 풀지 못하면 당신은 갈 수 없다.

제자: 어떤 수련생은 장시간 병업을 소업하는 상태에 처해 있어서 시종 그 한 층차 중에서 머물러 올라가지 못하는 데요?

사부: 그 한 층차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다. 다시 말해서 집착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수련생 중에는 보편적으로 두 종류의 정황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병에 대해 집착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말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신들의 수련은 단일하게 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은 제고해야 하는 동시에 또 당신의 업력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업력에 집착하여 제고되어 올라오지 못하고 心性(썩씽)이 제고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그 관을 넘지 못하므로 아주 오래 끌 것이다. 곧 말해서 당신은 수련 중에서 진보가 있을 수 없으며 늘 그 상태 중에 머물러 있다. 당신이 정말로 정진 중에서 자신을 제고했다면 이 관

은 일찍이 넘어갔다. 그렇게 긴 시간을 지체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병 자체에 대한 집착이 형성되어 당신이 대법을 수련하는 확고한 신념을 동요시켰다. 이것은 바로 한 난(難)으로 안 되어 한 난, 또 한 난을 덧붙여서, 관이 이렇게 크게 변했다. 물론 또 업력이 큰 것을 배제하지 않는데, 수련은 바로 복잡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대다수 원인은 모두 자신의 층차 제고가 너무나 느려서 조성된 것으로서, 이 상태를 너무 길게 끈 것이다.

제자: 당신께서 개별적인 수련생과 만난 비디오테이프는, 많은 수련생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정황을 보고하고, 문제를 제출하는 등 당신이 개별적인 장소에서 설법한 이런 것을 들어줘도 좋습니까?

사부: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 개별적인 장소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든 녹음하고 녹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 그는 기필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그는 나를 속이는데 그는 사실 그 자신을 속이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일체 수련이나 일체 제고는 모두 당신 자신을 수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숨기고 있는 일체의 것은 모두 마치 어린아이가 노는 것과 같을 뿐이다. 내가 개별적인 상황을 겨냥하여 말한 문제는 보편성이 없다. 보편성이 없는

상관하지 않는다. 생활상의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해결할 수 없다고 하여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 국가, 그것은 바로 이러한 복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건대 해결할 수 있든지 해결할 수 없든지 혹은 어디에서 수련하든지, 만약 당신이 이런 정황이라면 그것을 너무 중하게 보지 말라. 어디에서 수련하든지 모두 원만(圓滿)에 이를 수 있다. 나는 최대한도로 속인상태에 부합하여 수련하라고 말했는데, 포함되는 함의가 아주 넓다. 그러나 당신이 현재 여기에서 수련하는 것이 비교적 좋은 느낌이라고 하면, 당신은 여기에서 수련하라. 그러나 내가 생각하건대, 만약 당신이 신체가 건장하고 힘이 있다면 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만약 나이가 많다면 그럼 또 그것을 너무 중하게 보지 말라. 많은 일들도 표면처럼 이러지는 않으며 특수한 정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나는 더 말하고 싶지 않다.

제자: 사부님의 “원용(圓容)”이란 경문 중에서 ‘다 버린다(捨盡)’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사부: 바로 당신의 모든 집착을 다 없어지게 버린다는 것이다. 한 가지 집착이 있어도 그것은 마치 자물쇠 같고 마

공부를 제일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제자: 저는 57세로 대법을 수련한 지 2년 여 되었지만 아직 생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부: 매 사람마다 정황은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모두 이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렇하다. 개별적인 것을 나는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오늘 말하면 또 보편성을 가진다. 사람마다 모두 다른 정황이 있는데,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중하게 보지 말라. 만약 당신이 늘 이 일을 생각한다면, 집착을 형성한다. 응당 있어야 할 것이지만 또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당신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게 하고 몸속에서 전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인데, 어쨌든 매 사람마다 정황은 같지 않다. 있다고 당신이 수련할 수 있고, 없다고 당신이 수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느니, 이 개념이 아니다.

제자: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고 정부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생활할 방법이 없는데, 이러면 德(더)를 잃게 됩니까? 마땅히 대륙에 돌아가서 수련해야 좋습니까?

사부: 어디에서 수련하든지 모두 똑같은데 나는 이것을

것을 당신이 내놓는다면 다른 사람을 교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이 법리는 매우 크다. 나는 모두 거시적, 정체(整體)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구체적인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은, 말하고 나면 당신은 수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당신은 바로 대법 중에서 수련하는 일원(一員)이므로 당신이 대법을 위해서 책임지는 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책임지는 것이다. 이 대법이 한 걸음만 빛나가도 당신은 결코 돌아갈 수 없다. 만약 법이 바르지 못하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수련하여 원만하게 할 수 없다.

제자: 저는 안을 향해 찾아야 함을 배워 평소에 이런 좋지 못한 마음을 제거하는 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지적해 주면 그는 저에 대해 불쾌해 합니다. 이것은 업을 짓는 것입니까?

사부: 이것은 업을 짓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착심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질구레한 일에 신경 쓰는 소심한 사람으로 변하지는 말라.

다른 사람에게 지적해 주는 것을 말한다면, 선의(善意)의 지적은 마땅히 해야 한다. 여러분은 수련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하지 않는가? 우선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결점이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도 수련하고 있기 때문인데, 왜 그에게 알려주지 않는가? 그가 어떻게 대하든지 그에게 알려줘야 할 것은 알려주라. 당신들의 마음이 선(善)한 것을 사부는 보았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가 받아들이지 않음을 말한다면,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당신은 그가 마땅히 제거해야 할 그 마음을 건드린 것으로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에 대한 촉진이다. 그가 그때는 깨닫지 못하지만 지난 후에 깨달을 수 있다. 만약 그가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또 다시 다른 사람의 입을 이용해 그를 다시 두드릴 것인데, 또다시 깨닫지 못하면 그로 하여금 머리를 부딪쳐 큰 혹이 나게 할 것이다. (웃음) 말한 것은 우스갯소리다! 사실 수련은 바로 사람의 집착심을 제거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수련해야 하는가에 명백해지려면 반드시 『전법륜(轉法輪)』 이 책을 보아야 하는바 반복적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집착심을 발견하고도 제거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이다. 자신이 발견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지적해줄 때 당신이 마음속으로 기분이 좋지 못하다고 느끼면 당신은 『전법륜』을 들고 좀 보라. 당신이 어떠한 목적을 품지 않고, 당신이 무심코 『전법륜』을 들어 중문이든,

부합되는 위치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사부: 조정할 수 있는바 조금도 영향 받지 않는다.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습관으로 형성되고, 그 기(機)도 변형될 것이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또 우리 때 사람마다 하는 동작이 조금의 차이도 없이 한 틀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불가능하다. 확실히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요구에 부합되게 하면 된다. 되도록 단체로 하되 연공할 때는 일치해야 한다.

제자: 가부좌를 두 시간 한다면, 구상가지(球狀加持), 두 손을 교대로 바꾸는 주상(柱狀)가지를 각각 반시간씩 하고 입정(入定)을 반시간 배치합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까?

사부: 만약 교란이 없는 정황에서나 혹은 당신에게 많은 시간이 있고 당신이 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앓을 수 있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주지 말아야 하며, 업무·학습에 영향주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또한 법 공부를 제일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이런 일을 당신이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때 사람마다 모두 부동한 시간 배치가 있지만, 반드시 법

제자: 사부님께서 사람을 제도함에 그렇게 큰 문을 열었는데, 무엇 때문에 수많은 각 공간의 신에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사부: 내가 법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바로잡힐 대상이다. 일체 생명은 모두 자신의 미래 생명의 위치를 새롭게 배치하고 있다.

제자: 원고 속에 흔히 사부님 책 속의 원래 말씀이 들어 있는데 응당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사부: 태워버리면 된다. 당신은 수련하는 제자이며, 당신은 불경(不敬)의 뜻이 없고 또한 보관할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들이 책을 베끼기 때, 어떤 사람은 잘못 베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 그것을 모두 태워 버리면 되는데 문제가 없다. 법은 글자의 다른 공간 속에 있으며 인간의 불로는 그를 태울 수 없다. 없애버린 것은 다만 가장 큰 한 층의 입자로 구성된 종이와 표면의 잉크일 뿐이다.

제자: 정공을 연마할 때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만약 체형이 자기도 모르게 요구에 부합하지 않게 변할 때면 요구에

영문이든 아니면 다른 어종이든지, 당신이 임의대로 그것을 펼치면 틀림없이 그 한 편은 바로 당신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당신이 보면 틀림없이 이리하다. 그러나 당신은 시험하지 말라. 당신이 시험해 보려는 이 마음은 아주 좋지 않고, 법에 대해 엄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시험하려고 할 때에는 소용이 없고 또한 쓸모가 없다.

제자: 저는 법을 배운 지 근 2년이 되고 心性(썩썩)도 제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직 신체 쪽에서 어떤 큰 난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그래도 저를 책임지고 계십니까?

사부: 당신이 2년을 수련했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라. 내가 당신을 책임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벌써 이 문을 떠났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은 큰 난을 만나 자동차에 부딪혀 자동차를 부서지게 했는데도 어떻게 되지 않았으니 나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마다 수련 정황이 모두 다르므로 당신을 그렇게 배치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채택하여 당신의 소업을 도울 것이다. 사실 모두 똑같다면 당신들은 수련할 필요가 없이 척 보기만 하면 안다. 당신이 부딪히는 것마다 모두 그 사람과 똑같아, '나도 따라 하겠다.'라고 한

다면, 그것은 수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정황은 모두 천차만별이다.

제자: 어린이에게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습관적으로 늘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잠들기 전에도 그가 듣도록 틀어주는 데, 이렇게 하면 성장한 후, 법을 듣기만 하면 잠을 자게 될까요?

사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잘했다. 어린이가 듣기 좋아하는 그것은 그의 선천적 본성의 그 일면이 명백한 것이다. 어린이는 3세 이후 선천적인 것이 점차적으로 적어지게 되고 감춰지게 된다. 3세 이후부터 6세 이전까지 어린이는 그런대로 아주 천진하다. 6살이 넘으면 쉽게 관념이 형성된다.

제자: 수련의 기연(機緣)은 어떻게 심어지는지요.

사부: 부동한 층차에서 맺어진 것도 있고, 인간 여기에서 맺어진 것도 있다.

제자: 현재 우리 지역의 대법자료는 언제나 사회에서 대량으로 공개 발행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수련하려면 당신은 한번 시험해 보라. 어떤 수련생은 과거에 찬물을 감히 마시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마셔도 괜찮다. 감히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그것은 다만 사람의 관념이다. 어제 내가 예를 들었는데, 수련생이 내게 말했다. 즉 그는 자동차에 부딪혔는데 두 어깨, 신체의 뼈, 골반 뼈가 모두 부딪혀 부서졌다. 그는 혼수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병원에서는, 이 사람은 회복하기 아주 어렵고 사람이 이미 이렇게 되어 힘들므로, 후사를 준비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자신이 침대에서 내려와 걸었고 병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의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하고 말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후에 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그가 아직도 걷는가? 하고 물었다. 그 뜻은 아직도 걸을 수 있는가?를 말한 것이었고, 다른 사람은 그가 지금은 걷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는데, “거봐.” 그 의사는, “내가 안 된다고 했지.” 하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곧 그에게, “지금은 달릴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박수) 물론 사람의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수련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 무엇을 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늘 자신을 속인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려 기침을 하며 많이 먹으면 똥똥해질 수 있습니다.

사부: 이것은 마치 속인이 제출한 문제 같은데, 이것은 수련인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당신은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당신 자신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무의식중에 모두 신체 상태를 개변할 수 있기 때문에, 속인과는 구별이 있다. 수련자가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열이 오를까 봐 두려워하는 그것은 하나의 집착인데, 다시 말하면 또 그런 일이 아니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기초해서 법을 인식하여 초상적인 이치로 자신을 가늠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전히 속인의 이치로 자신을 가늠할 때에 나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그건 바로 心性(심성)문제이다. 감기에 걸리고, 기침할까 봐 두려운 이것은 속인으로서, 나는 당신이 아직 수련하지 못했음을 알고 있다. 우리 수련하는 사람의 이 신체는 최후에 정백체(淨白體)에 이른 다음, 삼계를 벗어나 고에너지물질로 구성된 신체로 되는바, 그렇다면 수련과정 중에 우리는 높은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 도달하기 전까지 나는 사람의 관념으로 나 자신을 가늠하고 요구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사람이다. 당신이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당신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모두 높은 표준으로 자신에게 요구해야 한다.

사부: 당신들 여러 사람이 수련을 아주 잘했고, 형식상에서도 기본적으로 대법의 형식으로 수련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문제가 없다. 자료 문제를 말하자면 어떤 지역은 아마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없을 수도 있다. 중국대륙 어떤 지역은 몇십 명이 책 한 권을 보고 있는데, 극히 부족하다. 특히 농촌 그곳이 더욱 부족한데, 책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해결될 것이다.

제자: 법에 기초해서 법을 인식함에 어떻게 해야만 이 점을 더욱 잘할 수 있습니까?

사부: 법에 기초해서 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큰 특징은, 마치 외부사람인 것처럼, 속인의 관념으로 법을 가늠하고, 속인의 이런 논법으로 대법을 말한다는 것이다. 법리상에서 법을 진정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말하는 바가 법이고, 행위 또한 대법제자답게 행동하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정진 중에서 수련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담론하는 것도 어떻게 정진 과정 중에서 더욱 정진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 기초해서 법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지 감성(感性)적 인식을 품고 있거나, 혹은 속인이 법을 대함에 느끼는 단지 좋은 마음에서, 속인의 언어로 법을 말할 뿐이다. 흔히 모두 이러하며 차이가 아주 크다.

제자: 저는 최근에 풀이 죽어 일을 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타성(惰性)이 아닌가요?

사부: 정진하라! 정신을 차려라!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이것 역시 마성(魔性)의 한 가지 표현이다. 이것은 사상업력이 조성한 것으로서,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런 상태에 처하게 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법리에 따라서 법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정진하면 넘어갈 수 있다.

제자: 세 살 된 외손자가 사부님의 사진과法輪(파룬)도형 보기를 아주 좋아하고, 또 “法輪(파룬)은 천지(天地)에서 돌고 원만(圓滿)은 바로 집에 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 아버지는 항상 그의 법 공부를 교란하는데, 어떤 일들은 제가 또 직접 상관할 수 없습니다.

사부: 우선 자신의 원인을 좀 찾아보라.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선 그의 앞에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가 그를 수련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수련은 가장 올바른 일이다. 그의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 또한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나중에 아이에게 알려주라. 당신이 생각해 보라. 이 어린아이는 보통이 아니다. 세 살이라, 속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제가는데 이런 상태는 자신이 정진하지 않는 것인가요?

사부: 이성(理性)의 문제이다.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함에 정념의 주견이 있어야 한다.

제자: 일을 잘하는 것과 수련은 관계가 있습니까?

사부: 당신이 속인 속에서 일을 할 때,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당신들心性(썬썬)상의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데, 다만 기술상의 문제라면 그것과 당신들 수련은 관계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대면한 문제가心性(썬썬)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즉 말해서 당신이 한 일이 좋은 일일 수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데, 내 생각에 당신은 되도록 수련인의 표준에 따라 해야 맞는 것이다.

제자: 이미 고에너지물질로 전화(轉化)되었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전화된 신체는 여전히 물질공간의 객관적인 법칙의 제약을 받습니까?

사부: 완전히 전화된 후에는 받지 않는다. 다만 전화되지 않은 부분만 인류공간의 영향을 받을 것인데, 그는 이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제자: 열기가 있는 음식물을 먹으면 열이 나고 감기에 걸

한 정황도 모두 있다.

제자: 오직 천인(天人) 층차밖에 닦지 못한 사람은 육신이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그가 가야 할 위치로 가게 됩니까?

사부: 삼계 내의 이 천인, 그는 가장 큰 한 층 분자입자로 구성된 신체가 없고, 사람의 이 층의 입자보다 미시적인 입자로 구성된 신체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 층의 신체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삼계 이내에는 원만(圓滿)이라는 말이 없다고 한바, 삼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모두 원만으로 치지 않는다. 사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좀 잘한바, 다시 말해서 그는 속인 중에서 좋은 사람이고, 업력이 비교적 작거나 혹은 그가 한평생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은 수련하지 않아도 삼계 내 부동(不同)한 층차의 천상에 올라가서 천인(天人)이 될 것이다. 이것은 수련이 필요 없다. 그러나 얼마만한 해가 지나면 그는 다시 내려와 윤회(輪廻)해야 한다. 소도(小道)의 수련을 말하자면, 그가 삼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또한 다른 원인이 있는바 이것은 소도의 일이며, 그들의 일을 상관하지 않는다.

제자: 일을 처리하는데 주견이 없고 쉽게 남들에 의해 끌

제자: 속인 중의 향상심과 사부님께서 제기하신 집착심은 서로 비슷한 곳이 있습니까?

사부: 우주 대법은 부동한 층차의 생명이 존재하는 환경을 개창했으며, 부동한 층차의 생명을 육성했다. 사람에게도 가장 낮은 한 층 우주 대법이 환경과 생명을 육성한 바, 이 한 층 안에서 사람에게 사람이 알아야 할 이치를 개창해 준 것이다. 대법과 비슷한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나는 당신의 논조에 동의할 수 없다. 사람의 향상심은 아마 사람에게 대해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은 속인이고,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수련인이다. 수련인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직장일과 학습을 잘 완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제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일등을 쟁취하려는 것은 집착심인가요?

사부: 이 문제를 나는 이미 분명히 말했다. 많은 어린이들이 법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도 모두 1, 2등으로 많은 이들이 이러한바 아주 많다. 하지만 그들은 성적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대법 수련 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 공부와 법의 관계를 바르게 놓았다.

왜냐하면 공부는 학생으로서 마땅히 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법에 대한 이해로서, 어디에서든지 모두 마땅히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은 학생으로 마땅히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는 자연스럽게 공부도 잘하게 된다.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야 할 직무를 완수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대학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좋은 학교에 집착하고, 좋은 성적에 집착하고, 대학에 집착하면 되지 않는다. 나는 항상, “사람이 무엇을 하려하는 마음을 품고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흔히 정반대가 된다. 오직 그 일을 잘 하려고만 할 때는 저절로 된다.”라는 이런 한마디 말을 한다.

제자: 직장 일을 함에 시간과 힘이 드는데, 더욱 잘하려고 한다면 집착심이 아닙니까?

사부: 만약 직장일 중에서 당신이 얼렁뚱땅하고, 일을 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급여를 받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 마음속은 텅텅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련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수련하는 사람이기에, 당신은 마땅히 이 일체를 잘해야 한다. 바로 이런 관계이다.

할 바 없이 방대한 신은 모두 무형으로서 마치 널려있는 물 질과 같다. 그러나 그는 사상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층차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더욱 크고 힘도 더욱 크며, 층차가 높을수록 지혜가 더욱 크다.

제자: 연공을 시작한 지 겨우 반년이며 아직도 어떠한 연공 반응이나 상태가 없는데 사부님께서 저를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때에는 제가 아마 대근기지인(大根器之人)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생각은 괜찮습니까?

사부: 당신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모두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집착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바, 생각했으면 생각한 것이다. 매 사람마다 수련의 길은 모두 일정한 배치가 있으므로, 얼마든지 수련만 하라. 대법은 중생에게 열어준 것이다. 제자로서 내가 당신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나의 문제이다. 사실 당신은 법리를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수련할 수 있으나, 변화한 부분을 당신이 또 느끼지 못하는 이것은 당신이 수련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확실히 아주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확실히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수련상태는 같지 않다. 대근기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바 어떠

만 사람의 선량한 선천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동물 혹은 다른 생물이 인간으로 전생(轉生)된 것과는 완전한 구별이 있다. 사람으로 놓고 말하면 선한 마음은 매 사람마다 모두 있는바, 매 생명마다 있었던 경지 중에서 생명을 구성할 때는 모두 그 한 층차의 표준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다만 후천에 형성된 각종 관념이 속인 중에서 속인 사회에 발붙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신의 고만한 이익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으므로 선한 마음은 갈수록 작아졌다.

제자: 부처는 가장 높은 층차이고 인류는 가장 낮은 층차입니다. 부처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에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층차가 있습니까?

사부: 보아하니 당신은 법 공부를 하지 않았다. 우주의 구성을 나는 나의 수련생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했으니 당신은 책을 찾아서 보아라. 왜냐하면 말하기 시작하면 대단히 크고 또 대단히 길어서 한꺼번에 다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부처도 가장 높은 이가 아니며 당신이 상상한 그런 것과는 다르다. 과거에 가장 높은 신은 무형(無形)으로서 그는 형체가 없다. 그러나 형체가 있는 신은 전체 우주에서 볼 때 모두 중하층에 있다. 위층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비

제자: 저는 자신이 수련성취하지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또 금세(今世)에 성취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수련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부: 아주 결심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당신은 결심이 조금도 없다. 당신이 만약 다음 생에 또 이런 상태가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나는 다음 생에 또 이어서 수련하겠다고는 그런 것인가? 이 한 기연을 놓치지 않겠다는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일세에 꼭 성취할 수 있다.

제자: 저는 이후의 인류에게는法輪大法(파룬따파)가 널리 전해지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생에 이어서 수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사부: 이번 생에 수련성취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이어서 수련하려고 하는데, 다음 생에法輪大法(파룬따파)가 없다면 수련할 수도 없다. 그러나 당신이 문제를 제출한 것은 당신이 여전히 수련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정진하라.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하게 수련하라. 무슨 내려놓지 못할 것이 있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우주 중에 나타난 일체는 모두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큰 일이 인류사회

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우연한 것인가? 나는 인류의 미래 일을 말할 수 없다. 당신이 그것에 집착해 배울 것이므로, 그러면 집착심을 품고서 배우게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정진할 수 없는 원인도 바로 당신이 법에 대한 이해(理解)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당신이 책을 많이 보는 것이다. 책을 보는 것으로 하여금 시간을 좀 쓰게 할 뿐, 당신의 육신을 힘들게 하지도, 당신의 심지(心志)를 고달프게 하지도 않는다. 책을 많이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한 다음, 당신이 다시 정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수련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

제자: 홍콩 수련생들이 사부님께 문안드립니다!

현재 홍콩의 언론기자들이 사부님과法輪大法(파룬파)를 잘못 보도함으로 해서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이미 언론계에 공개서한을 보내 그 착오와, 왜곡된 보도를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각 동문제자들은 시드니와 뉴질랜드에서 사부님의 설법을 들은 후 더욱 확고하게 사부님의法輪大法(파룬파) 길을 따라 전진하며, 실수홍법(實修洪法) 하겠습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法輪大法(파룬파)가

호소하고 호소했던바, 바로 이 마음은 잘못이 없다! 간 사람이 많은가? 나는 간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1억 명이 연공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람마다 모두 간다면 그건 엄청나서 베이징(北京)도 다 담지 못한다. 전국의 1억 명 중에서 겨우 1만여 명이 갔는데 어찌하여 많다고 하는가?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를 사교로 정한다면 내가 보기엔 간 사람들이 1만 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을 향해 진실한 정황을 호소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가? 잘못이 없다! (박수)

우리는, 우리가 정부를 반대하지 않았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여러 사람이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잘못이 있는가? 당신은 아직도 기어코 그를 사(邪)하다고 말해야 하는가? 만약 여러 사람이 모두 속인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이 그를 뭐라고 말해도 그는 아마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는데, 당신이 그를 사하다고 말한다면 그가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자: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크고 작음은 선천적인 생명으로 있었던 층차의 높낮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까?

사부: 선한 마음은 사실 선천의 본성이며 세간에서는 다

배치할 때 사람에게 남긴 심각한 교훈을 깊이깊이 기억할 것이다.

제자: 法輪功(파룬궁)은 眞(쩐)·善(싼)·忍(런)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텐진(天津)에서 法輪功(파룬궁) 제자들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역시 마땅히 참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부: 이 문제를 이미 여러분에게 말했으므로 더 말하고 싶지 않다. 참음이란 수련자의 일체 행위 속의 표현이지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큰 법이 사람에게 의해 사사로이 파괴되었는데, 가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내가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베이징(北京)에 간 수련생들은 가서 시위한 것이 아니고, 행진한 것이 아니며, 구호가 없고, 표어가 없으며, 악의가 없이 모두 선한 생각에 근거하여 국가 지도자에게 진실한 상황을 호소한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일은 역시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법제자에 대한 불공평이 마치 그에 대한 불공평과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를 사(邪)하다고 말하면, 나에게 사(邪)하다고 말한 것과 같다. 매 사람마다 모두 이렇게 생각했고 매 사람마다 모두 대법을 위해 이름을 바로잡으려고 국가 지도자에게 상황을

전 세계 매 한 사람에게, 또 중국의 십몇억 매 한 사람에게 책 한 권씩을 준 다음 당신을 어느 위치에 놓을지를 다시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사람은 명백한 그 일면이 있고 또 명백하지 못한 그 일면이 있다. 표면상으로는 명백하지 않지만, 사실 그는 모두 명백한 그 일면이 있다. 法輪大法(파룬파파) 眞(쩐)·善(싼)·忍(런), 이 몇 글자를 사람이 알게 될 때, 그에게 생각이 일어날 것인데, 바로 그가 그때의 일념(一念)을 어디에 놓는가에 따라, 사람의 장래가 정해지고 사람의 위치가 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보도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어제 내가 말했듯이 전 세계 구석구석마다 잘 알게 된바, 매 한 사람마다 이 일에 대하여 모두 일념이 있을 것인데,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토록 엄숙한 대법을, 기자가 쓴 것이 무엇이든 그는 모두 자신이 한 일체를 감당해야 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속인사회 중에서 매 한 사람, 매 한 생명은 모두 장래 그가 한 일체를 감당해야 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천만번 진실하고 확실한 일이다. 대법 자체에 대한 공격,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모두 이 법(法)이 개창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마저 반대하는데, 그가 어디로 가겠는가?

제자: 『홍음(洪吟)』이 책을 제자가 본 후 온 얼굴이 눈 물에 젖었는데, 이로우이 많았습니다. 수련의 길에서 또 한 권 비할 바 없는 보서(寶書)입니다.

사부: 내가 이 책 중에 쓴 것은 모두 주요하게 수련 중의 일이나 법과 관계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여러분의 제고에 좋은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바로 그를 출판했다.

제자: 베이징(北京)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마땅히 참고, 대법에 견정해야 합니다.

사부: 자신을 수련할 수 있는 이 점은 당연히 정확한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사법이라고 말해도 당신들 모두가 다 아무렇지도 않다면 나는 잘못됐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수련생 때 사람마다 모두 대법 중에서 수련하고 있으며, 대법의 존귀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 자체를 소중히 하는 것 또한 당신 자신을 소중히 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대법을 배우는 과정 중에서 항상 일부 고됨이 있을 것이다. 당신들이 수면 중에서 꿈속의 고됨이든지, 실제적인 일 중에서 관을 넘든지, 실제 생활 중에서 관을 넘든지를 포함하여, 마치 작은 시험처럼 한 기간 동안 배운 후 좀 시험을 치는데, 당신이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은지, 잘 배웠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이 우주 대법은 곧 불패(不敗)에 영원히 서 있다. 게다가 또 그는 자신이 수리 복구할 능력이 있으므로 끊임없이 그를 원용(圓容)하고, 그로 하여금 영원히 나빠지지 않게 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은 이렇게 큰 법을 들을 자격이 없다. 석가모니 부처가 진법(眞法)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예수가 사람에게 그렇게 투철하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다만 그만큼만 들을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불신(佛神)의 이치를 아는 그것은 안 된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이렇게 많은 천기(天機)를 말해준바, 당신들이 원만(圓滿)을 이루면 나는 결코 사람에게 말해 준 것이 아니라 모두 신(神)에게 말해 준 것이다.

원만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장래에 그에게서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는바 그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법을 수련하여法輪世界(파룬쓰제)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문의 함의(涵義)도 그 속에 있다. 그러므로 장래에 사람에게 주느냐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은 이후의 일이다. 하지만 이 대법 자체와 나를 이후의 인류는 알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전(傳)하며 말할 것이고, 마치 신화(神話)이야기처럼 사람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말할 것이다. 또 최후에 이 한 층 생명의 위치를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이로 구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을 이해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적든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리 트는 것을 말하자면,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나도 구별하여 이 문제를 대할 것이다. 이 일생 중에서 다리를 트는 적이 없어서 마치 뼈, 근육이 모두 그렇게 자라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천히 연마(煉)하고 조금해하지 말라. 내가 생각하기에 결국에는 그래도 틀 수 있다. 왜냐하면 80여세, 곧 90세 되는 사람, 종래로 다리를 틀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모두 틀었기 때문이다. 연마하고 연마해 보라. 자신에 대해서 신심(信心)이 충만해야 한다. 과거에 수련하는 사람은 80, 90세나 100여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도를 얻었는데, 아주 흔히 보는 것이었다.

제자: 이후의 사람은 이 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문 ‘법정(法定)’ 중에서 “천추만대에 모두 내가 직접 여러분에게 남긴 이 길을 따라 수련해야만 비로소 원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부: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만 사람의 언어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법은 우주 중의 각계·각층에서 곧 영원히 모두 개변하지 않을 것인바, 영원히 더는 개변할 수

는지 잘 배우지 못했는지를 본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알려주는데, 당신이 최후에 이르러 대법 중에서 원만을 이루려 할 때 시험이 있을 것이다.

제자: 대대로 전해지는 질병 유전자를 적출했다면, 이 일과 관계있는 모든,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자 및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이 층 공간과 기타 공간에 존재하는 정황을 포함해서, 득과 실이 존재합니까?

사부: 어떻게 말할까? 당신은 기타 공간의 것을 움직일 수 없다. 사람은 생명의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인류의 분자로 구성된 가장 표면적인 신체의 정황일 뿐이다. 사람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을 사람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과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조사하려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인류의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없다. 유전(遺傳)하고 있는 질병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말하자면, 또한 이런 것이 아니다. 인체에는 스스로 질병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한다. 동시에 인간의 많은 병(病因)이, 과학자들도 결코 이런 질병인자가 조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당신이 사람으로 하여금 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수련의 각도에서 말하는데, 만약 한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는 생을 마친 후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사람이 업만 짓고 업을 갚지 않아 그의 업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병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것이며, 생활 중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고 난관이 있을 것이며 고생스러운 삶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모두 사람의 업을 없애고, 업력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병이 있을 때 이 소업은 비교적 크다. 그렇다면 병이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일이 아닌가? 물론 좋은 일은 아니다. 사람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병은 적다. 그렇다면 사람이 무슨 유전자를 적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사실 사람은 무엇을 하고 싶으면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일이다. 나는 다만 여러분에게 이런 이치를 말해줬을 뿐이다. 사람에게는 늘 탐구하려 하고, 늘 발전하려 하는, 늘 이런 변이된 사람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얼마든지 일을 하라. 왜냐하면 현재의 과학에 생활 중의 모든 영역, 미세한 영역이 관통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체는 마치 모두 그것을 위해 생활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당신은 마음 놓고 일을 하라. 오늘날의

도 갈수록 명백해지게 하는데, 구하지 않아야 스스로 얻게 됩니다. 이런 인식과 감수가 맞습니까?

사부: 그렇다! 이 상태는 대단히 좋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가뿐함을 느끼며, 일상이 편안해질 것이다. 자신이 끊임 없이 정진함에 따라 법리에 대해 갈수록 명백해지므로 수련도 갈수록 간단해진다. 많은 일들을 보지만 속인이 문제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일목요연해진다. 속인은 어떤 모순이 발생하면 서로 논쟁하며 누구도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의 논쟁 속에 있지 않으므로, 당신이 옆에서 냉정하게 그들을 보면 당신은 그들 중 누구의 말이 이치에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속인 중에서 멀어지고 나서 그가 논쟁하는 것을 보면, 그가 몇 마디 하지 않아도 당신은 무엇이든 모두 명백해져, 여기 무슨 다툼 것이 있는가 하는 감각이 있을 것인데, 일목요연하다.

제자: 제 나이가 많고, 뼈가 너무 굳어 다리를 틀어 가부좌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반가부좌조차도 할 수가 없어 다리를 내려놓고 연공합니다.

사부: 수련은 어떠한 연령의 사람에 대해 말해도 문제가 없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 자체에는 결코 수련하기 어려운

깨달은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더욱 제고하면 당신이 방금 깨달은 것이 또 그다지 맞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상태일 것이다. 그러므로 위로 수련할수록 더욱 맞는 것이다.

제자: 수련은 생명의 본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줄곧 원만에 이르기까지이며, 공기둥은 정수리에서 시작하여 위로 자라서 줄곧 원만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이 두 종류의 과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부: 고에너지물질로 신체가 전변(轉變)되는 것은 本體(번티)의 변화이다. 대각자는 대단히 큰 에너지를 구비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의 수련 중 표현이 바로 공기둥이다. 그것은 수련자의 법이 표현한 외관의 일부분이다. 그것은 두 종류의 존재형식이다. 수련 중에 필요한 일체를, 자신의 분자의 개변을 포함하여, 이 에너지에 의거해야 하는데, 그것은 일체를 개변시킬 수 있다. 대법수련은 생명의 가장 미시적인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수련하는 사람이라 그 표면도 변화하는데, 단지 변화하는 비례가 작을 뿐으로 대략 100분의 1의 비례이다.

제자: 수련은 사람 이 쪽의 신체에 작용을 일으키고, 법리

사람은 바로 이런 생존 상태인데 그것은 당신의 직업이다. 기왕 할 바에야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그것을 되도록 잘 하는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득과 실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수련과 관계가 없다. 그것은 당신의 직업이다. 직업과 수련은 분리돼야 하는 것이며 같은 일이 아니다. 당신의 직장일은 수련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 수련 중의 心性(썬썬)과 상태는 당신의 직장일과 당신이 일체 사물을 대하는 태도 중에 반영되어 나올 것이다.

제자: 만약 우주가 질서 있는 체계이고, 에너지가 무궁한 것이라면, 현재 혼란한 학설은 이런 우주 배치 체계에 어떻게 서로 적응할 수 있습니까?

사부: 사실 사람 여기가 어떻게 혼란하고 이런 학설이 아무리 많아도, 과거 고대 중국에는 제자백가(諸子百家)가 있었고 근대에는 각종 철학 학설이 있었으며, 또한 각종 종교 학설이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다루든지 모두 다 이 한 층의 것이며, 그것은 우주에 대해 어떠한 교란도 일으키지 못한다. 내가 드는 예는 마치 사람을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단지 예를 들었을 뿐이다. 즉 그 쓰레기 더미에서는 아무튼 각종 냄새가 방출되

어 나올 것인데 당신이 방출하지 못하게 해도 안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주와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도 없으며, 단지 사람 이 곳의 혼란한 한 가지 표현일 뿐이다. 난(亂)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보고 난 중에서 누가 아직도 정념이 있는가를 본다.

제자: 저는 가부좌를 8시간 20분까지 한 적이 있는데 이후로 길을 걸으면 늘 절뚝거립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이 좋아졌는데 설마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부: 그 여덟 시간 남짓은 그야말로 한번 시험해 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연공은 힘닿는 대로 좀 많이 해야 하는데 좋은 일이다.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필코 그렇게 긴 시간을 틀러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수련의 이 한 마음은 당연히 아주 좋은 것이지만, 또 다른 집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 당신이 정말로 다리를 트는 것 자체에 집착했다면, 그럼 아마 당신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요소나 당신으로 하여금 명백해지게 하는 요소를 조성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수련하고 수련하는데 어떤 집착심도 품지 말아야 한다. 기필코 최고에 도달하려 하고, 나는 기필코 다른 사람보다 다리를 트는 시간이 더욱 길어야 한다거나 혹은 어떤 다른 마음이 생겼을 때라면, 틀

생활 중에서 특히 중국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혈통고 다투는 데 쓰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찰에 쓰고 있다. 이렇게 해 옴으로써 사상과 사유방식이 매우 좋지 않게 되었는데, 수련인의 사상과는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 사람은 이미 습관이 되어, 문제를 생각하기만 하면 두뇌를 거기에다 써 바로 나쁜 염두를 움직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나는 바로 당신들의 그 부분 사상을 우선 폐쇄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게 하고, 당신의 좋은 사상 그 부분을 발달하게 한다. 그러면 이 기간 당신에게는 일을 쉽게 잇는 일이 나타날 것인데, 당신을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 그런 사상은 나오자마자 나쁜 염두를 움직이는데,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물론 어떻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유방식이 맞지 않아서인데, 쓰기만 하면 그런 사유방식이기 때문에 그를 개변해 주어야 한다. 한 기간 시간에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이것은 여러분의 수련을 위해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직장일과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한 일이 그다지 맞지 않음을 발견함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당신의 제고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법리는 끊임없이 승화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현재 깨달은 것은 맞지만, 당신이 다시 더 제고하면 당신은 또 당신이

면 이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시켜야 한다. 당신 이 쪽이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수련이 잘된 일면은 움직이지 않으며 사람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신의 수련이 잘된 그 한 부분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오직 위로 끊임없이 제고되도록 보증한 것으로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어떤 때 또 잊어버렸다 하는 감각이 표현될 수 있거나, 혹은 이 한 관을 넘겼는데 어찌하여 한 기간 시간이 지난 현재도 또 이 집착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는데, 바로 수련이 잘된 그 한 부분, 표준에 도달한 그 한 부분이 이미 분리되어 이렇게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또 완전히 이렇지는 않다. 당신이 끊임없이 진실하게 수련할 때 당신 사람의 가장 표면의 이 부분도 갈수록 크게 개변되는바, 법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것도 갈수록 많아진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 기간 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고, 나타날 수 있는 정황이며 정상적인 것이다.

제자: 현재 갈수록 말하기가 싫어지며 일을 하는 데에서도 비교적 담담합니다. 게다가 일을 잘 잇는데, 이런 상태가 맞는 것입니까?

사부: 일을 잇음은 또 일종 정황이 있다. 당신들이 속인

림없이 그 반대로 될 것이다. 절대로 대법 수련 중에서 집착심이 생기게 할 수 없으며 다만 당신으로 하여금 집착심을 제거하게 할 뿐이다.

장기간의 수련 중에서 당신은 이미 자연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 다리를 틀 수 있고, 또 시간이 있고 집에서 그다지 큰 일이 없어서 틀기만 하면 그렇게 긴 시간 튼다는 것을 말하자면, 내 생각에 그럼 당신은 틀어도 좋다. 그러나 이 속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바, 내가 말했듯이 우리 대법은 장기적인 정(定) 속에서 수련함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나는 말했는데, 책을 보고 법 공부를 많이 하여 멍멍백백하게 당신의 이 마음을 수련해야 하고 법 중에서 제고해야 한다. 그러나 수련 동작 자체는 원만(圓滿)의 보조 수단이므로, 당신이 만약 이 8시간을 법 공부에 사용한다면 내가 보전대 제고가 더욱 클 것이다. 사실 나는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이 법을 전할 당초에 ‘속인사회 상태 중에서 사람은 어떻게 수련하는가?’를 이미 고려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주 촉박하고, 많은 사람이 직장 일로 바빠 틀림없이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다리를 틀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이 문제를 말한 적이 있다. 설령 당신이 가부좌할 시간이 반시간만 있더라도 나는 모두 당신으로 하여금

빠뜨리지 않게 하며, 연공의 동작 중에서 마땅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모두 당신으로 하여금 빠뜨리지 않게 하는데, 바로 이런 형식에 적응하여 수련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이 만약 사람마다 매일 8시간을 하여, 속인사회의 일하는 사람이 모두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인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은 이치로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당신에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다. 만약 당신에게 시간이 매우 많고 당신이 또 자연스럽게 아주 긴 시간을 틀 수 있다면, 그럼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집착심을 품고 어떠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이런 사유방식 대부분은 모두 동양인의 사유방식이다.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늘 변증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백인 수련생들이 알아들었는지 알아듣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들은 알아들었는가? (박수) 좋다. 내가 설법할 때의 사유방식은 통상 동양인의 사유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어봤다.

제자: 삼계 내에서 생긴 생명이 수련하여 삼계를 벗어나려 함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까?

사부: 꼭 그렇지는 않다. 이전의 수련 중에서는 아주 어려

제자: 저는 『전법륜(轉法輪)』을 볼 때, 허다한 고심(高深)한 이치를 늘 보고 나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저는 설법 녹음을 들을 때, 지나고 나면 무엇이든지 다 잊어버립니다.

사부: 이것도 정상이다. 하나는 막 수련을 시작했을 때 사상 중에 좋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조성된 것이다. 하나는 법을 얻은 그 한 방면의 당신이 이미 기억했기 때문에, 곧 수련이 잘된 그 한 부분은, 당신이 끊임없이 수련함에 따라, 제고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그러면 당신의 잘 배운 그 부분은 더욱 빠르게 분리된다. 당신이 잘 배운 후면 즉시 분리되는데, 일단 분리되고 나면 당신의 잘 수련되지 못한 표면이 부분과는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찌서 다 잊어버렸는가 하는 느낌이 든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그 한 부분은 이미 건너갔는바, 그것은 합격을 했고 표준에 닿았으며, 법(法)의 요구에 도달함에 따라 바로 승화된 것이다. 승화된 후의 그 한 부분은 바로 신(神)인바, 절대 사람과 섞여 같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심산수림 속에서 수련한 사람은 이렇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것은 그가 속인사회를 접촉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제자는 속인사회 중에서 수련하는데, 신의 그 한 부분이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람 그는 깨닫지 못한다. 그는 이 일체에 모두 배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바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자: 세상에서 전적으로 나쁜 일만 하는 나쁜 사람을, 운명 중에 정해진 것이라고 하여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사부: 안 된다. 일체가 모두 정해졌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질서 있게 배치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나는 법 중에서 이미 말했다. 두 가지 정황이 사람의 운명을 개변할 수 있고, 사람의 배치를 개변할 수 있다고 했다. 하나는 바로 한 사람이 수련의 길을 걷는 것인데, 당신의 일생 중에 수련의 것이 없으면, 생명 전반을 모두 곧 새롭게 개변해야 한다. 또 하나의 정황은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인데, 그의 운명을 개변할 수 있다. 그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쁜 일을 하면, 그의 일생의 운명을 개변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업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운명을 개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의 선천적 배치를 개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가 한 일체를 상환하는 중에 층층이 없어지는 것이다. 수련은 인생을 개변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다.

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들 자신의 세계에서 내려온 이들을 제도하는 것이다. 석가모니부처, 예수가 내려와서 사람을 제도할 때 그들의 인종 범위 내에서 그들은 누구든 모두 제도했다. 하지만 거기에도 일정한 국한성이 있었다. 현재는 우주의 일체 중생 모두 그들의 위치를 새롭게 배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한 방면에서도 모두 기회가 있을 것인즉 바로 이 생명이 이 일체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본다.

제자: 우리 대법은 불가·도가와 기문의 이치를 포함했는데, 기타 여래가 증오(證悟)한 일부 법리는 우리에게 지도 작용이 있습니까?

사부: 없다. 대법은 일체를 포함하지만, 어느 한 소도(小道)·소문(小門)이나 혹은 어느 한 여래의 이치를 덧붙여 들여올 수 없다.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빗나가게 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주 대법과 더불어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不同)한 층차의 인식과 과위(果位)는 모두 법이 육성한 것이다. 당신들이 이 대법 중에서 수련한 일체도 당신 자신이 법에 대하여 증오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들 자신이 얻은 과위이다.

말한 김에 여러분에게 말해주겠다. 우리 여기에 자리한

어떤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인데, 아직 나의 책을 본 적이 없다. 우리의 수련생이나 혹은 친척들이 데리고 왔다.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모두 연분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나는 당신들이 제출한 문제에 답해 줄 시간이 없다. 무엇 때문인가? 내가 여기에 한번 오기가 매우 쉽지 않고, 그들도 몇 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런 한 차례 법회를 열었으며, 그들 수련 중의 많은 문제를 내가 답해줄 필요가 있으므로, 이 시간은 수련인에 대해 말하자면 지극히 진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시간을 당신들에게 줄 수 없는바, 당신들은 부디 양해하기 바란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당신들이 제출한 문제는 흔히 모두 속인의 문제이고, 또 나는 인류사회의 일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이 방금 “당신의 사부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국가의 경제를 잘해놓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인류사회의 발전은 규율에 따라 발전하고 있으며, 어느 한 단계에 이르러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것은 신(神)이 정(定)해놓은 것이다. 불(佛)·도(道)·신(神)은 모두 이 일체를 보호하고 있으며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신들이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다면, 당신의 경제를 좋게 하기는커녕 온 세상은 일찍이 크게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제출한 문제를 보면, 첫째 그는 우리 수련인이 아니고, 둘째 도전적인 면이 있으며, 셋째 그는 사람의 이 기점에 서서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으면 신(神)이 바로 당신에게 그것을 해주어야 하는가?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럼 하늘(天)이 당신에게 그것을 해주어야 하는가? 신이 모두 당신 사람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가? 당신이 국가 경제를 잘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당신은 신(神)이 다른 일을 더욱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아는가! 당신이 알다시피 사람이 복이 없는 것은, 그의 도덕이 안 되고 인심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인데, 만약 인심이 모두 좋아진다면 그는 곧 복이 있을 것이고 그는 곧 번창할 것이다. 당신은 이 이치를 아는가?! 사람은 그렇게 나쁘게 변하고서도 또 이것을 가지려 하고 저것을 가지려 하는데, 누가 당신에게 주겠는가?! 나는 여기에서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보편적인 법리를 말하고 있는바 바로 이런 이치이다. 복을 바라고, 사람은 복이 있기를 바라는데, 곧 업력이 적고 큰 덕(德)이 있어야만 비로소 부강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반드시 사람의 마음이 선(善)을 향해야 하고, 업력이 적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재(天災)와 인화(人禍) 무엇이든 다 있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